

그는 해냈다!

2022년 4월 17일 설교

부활절 예배

크리스 식스 목사

소개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One Voice Fellowship의 방문자입니다.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올해 New City Catechism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6번 문제를 봅니다. 귀하의 게시판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6문: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그가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그에 대한 참조 없이 살며, 그의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반역하여 우리의 죽음과 모든 피조물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New City Catechism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16번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7:46) 포세이큰은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도움 없이 혼자 두는 것. 성부 하나님은 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셨을 때 우리 죄로 덮인 아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딸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비극이자 승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7:45~50.

“45 제 육시부터 온 땅에 흑암이 있어 제 구시까지 이르렀더라.

46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7 곁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48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채우고 갈대에 메어 그에게 마시우니

49 다른 사람들은 ”잠깐만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할지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45절은 신비한 흑암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이 소리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특정한 순간에 괴로움에 비명을 질렀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희생자에게 최대한의 고통과 피해를 주기 위해 금속 조각이 들어 있는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소리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팔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비명을 지르셨다는 것을 읽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46절에서 이 지점에서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아파요!”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왜 비명을 지르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마음의 비명이었다. ”왜 나를 버렸나요?”

우리는 앞서 사도신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지옥을 일차적으로 물리적 장소나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분리의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셨습니다. 하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사셨기 때문에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지워졌을 때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거룩하심은 예수님이 되신 죄 많은 벌레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천국을 잃고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시편 22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22:1-2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탄식하는 말을 멀리하시나이까
2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되 내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분명히 시편 22편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시며 부르짖으셨지만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왕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노래와 기도를 썼을 때 그는 경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는데,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특별합니다. 이 시는 다윗보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편 22편 6-8절을 들으십시오.

6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의 멸시를 받는 자니라
7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그들은 나에게 입을 벌린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다.
8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저를 건지실 것이요 건지실 것은 저를 기뻐하심이라”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 시편 22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마태복음 27:39, 41-43을 보십시오.

“39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41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었나요? 12살 때 농구팀에서 뛰었습니다. 나는 무서운 농구선수였다. 그러나 한 경기 동안 나는 바스켓 바로 아래에서 있었다. 공을 든 소년은 나에게 공을 던지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나는 열려 있었다. 나는 바구니에 명확한 슛을 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아주 빠르게 공을 던졌다. 나는 당황했다. 나는 피했다. 공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 체육관의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팀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나를 비웃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았다.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위해 기꺼이 죽었습니다. 농구공 밑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악하고 끔찍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예수께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과 나를 위해 조롱을 당하고 비웃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영적, 감정적, 관계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봅시다.

“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가슴에서 녹았으나
15 내 기력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턱에 붙었나이다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희생자의 어깨가 관절에서 빠져 나옵니다. 팔로 매달려 있으면 숨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폐는 너무 힘들게 일하고 심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과 노력은 희생자를 매우 목마르게 만듭니다. 시편 22:15이 요한복음 19:28-30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십시오.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된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섰는지라 그들이 신 포도주를 담은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대어 그 입에 대니라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음으로 시편 22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행악자들의 무리가 나를 에워쌌으며 그들이 내 수족을 찢렀음이라”

16절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 군인들과 분노한 이스라엘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의 손과 발을 못으로 찢러 그의 몸을 십자가에 고정시켰다.

이제 시편 22:17을 보십시오.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기뻐하며”

팔에 매달린 몸으로 예수님의 가슴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모두가 그의 갈비뼈가 피부를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고통받는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사람이 범죄자와 반군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편의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성경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되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2:18을 보십시오.

“18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cast lot”은 도박을 의미합니다. 누가 상을 받는지 보기 위해 주사위나 무엇인가를 던지다. 18절을 요한복음 19:23-25에서 요한이 보고한 것과 비교하십시오.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곧 속옷도 하였더라 그러나 속옷은 이음매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짠 것이요
24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고
이것은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다” 하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우리는 시편 22:1-18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았습니다. 나는 이 다음 구절들이 부활절 아침을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죽은 채로 남아 있지 않았다. 그의 생명은 무덤에서 건져졌습니다.

시편 22:19-22.

19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도움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영혼을 칼에서, 내 보배로운 생명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21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해내셨습니다!

22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알리리니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덤에 있던 여인들에게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형제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 행하는 것, 천국에 대해 기대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혼란스럽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차를 마시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심이나 질문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라”

8절에 묘사된 복음의 지리적 전파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이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지리적 언급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22:23, 26-28.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외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26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먹고 배부르며 그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당신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당신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28 왕권은 여호와께 있고 그는 만국을 다스리시며”

저는 27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 One Voice Fellowship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이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을 지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데려오기 위해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편 22편의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두 구절이 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기꺼이 견디셨는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편 22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고 오늘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이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31 그들이 와서 그의 의를 아직 행하지 아니하신 백성에게 전파하리로다

후손은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미래 세대에게 "그가 해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그게 그가 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육체적 고통을 기꺼이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옥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의 고립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보고한 것을 보십시오.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토록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상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시는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희망의 말로 끝맺습니다. "그가 해냈다." "다 끝났어." 오늘 밤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나는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는 직장으로, 학교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또 다른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친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갈등과 질병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해냈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이번 주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일깨워줄 때 십자가를 상기시키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진리를 붙들도록 도와주소서. "해냈어!"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